

〈낙성비룡(落星飛龍)〉에서 우울증의 해소와 여행의 의미

이현주*

|| 차례 ||

- I. 머리말
- II. 인생의 전환점과 우울증의 맥락
- III. 우울증의 해소와 여행의 의미
- IV. 맺음말

【 】

〈낙성비룡〉의 주인공 경작은 조실부모하고 유년기에는 길러주던 유모마저 세상을 뜨자 홀로 남겨지게 된다. 이렇게 삶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그는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 이는 식이장애와 수면장애 그리고 학습장애로 드러난다. 그의 도량을 눈여겨 본 양정승의 사위로 들어가게 되지만 처가의 박대를 받게 되고 그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때는 자기부정의 시기이다. 장인인 양정승이 죽자 그는 처가에서 쫓겨나 본의 아니게 여행을 하게 된다. 이 여행에서 그는 과거의 자아를 발견하고 선행을 배풀어 청운사로 들어가게 된다. 청운사에서 주변인들에게 인정받고 화합하게 되자 그는 침식을 잊고 공부에 힘쓰기 시작한다. 이때는 자기긍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운사에서 공부를 완성한 후 그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된다. 자연에서 노닐며 친구들도 만나서 자신감을 갖게 되며 다시 세상에 나와 과거급제하게 된다. 그 후 그는 가문을 이루고 친구와 벗하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 이 시기는 자이완성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자기부정과 자기긍정 그리고 자이완성의 시기 사이에는 두 번의 여행이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과 강사

있다. 첫 번째 여행으로 그는 과거의 자기를 안아주며 두 번째 여행으로는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린다. 두 번에 걸친 여행으로 인해 그는 현재에 받을 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낙성비룡>은 18,9세기 유통된 낙선재본 소설이다. 가문소설적 영향을 크게 받았기에 <낙성비룡>주인공 경작은 자기 가문의 완성과 임금에 대한 충성 등에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작이 자칫 배타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이루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가 이룬 가문을 주변인들과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낙성비룡>의 특징은 고전소설 중 특이하게도 우울증과 같은 현대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해법을 가장 오래되면서 미래적인 방법인 인간관계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낙성비룡>, 우울증, 식이장애, 수면장애, 학습장애, 여행, 치유

I. 머리말

<낙성비룡>은 주인공 경작이 조실부모하고 양정승의 눈에 띄어 사위가 되고 여러 고난을 겪은 후 장원급제하여 오랑캐를 물리치는 공을 세우는 등 주인공의 영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 경작은 몇 번의 부침(浮沈)을 경험하는데, 이 부침은 경작이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와 정확히 겹치는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경작은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삶의 목표를 잃고 지나치게 많이 먹고 먹는 것에만 탐닉하며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책을 한 자도 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는 동일 인물 같지 않게 삶의 목표를 세우고 침식을 잊고 너무나 공부에 집중하고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서사 내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경작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낙성비룡(落星飛龍)>¹⁾에 나타난 주인공 경작의 우

우울증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번의 여행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우울증은 현대 우리 사회에서 해가 갈수록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울증의 흔한 증상으로 식이장애와 수면장애 그리고 학습장애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단순히 생존이나 영양, 지능 같은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며 심리적 정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세 가지 증상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²⁾ 식이장애는 보통 수면장애, 학습장애 등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에서는 경작의 우울증 증상으로서 이것의 특징을 살펴보고 경작이 우울증을 가지게 된 원인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려 한다.

<낙성비룡>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 연구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질서에 대한 항거의 뜻을 내포한 <낙성비룡>의 성격 을 거론한 연구가 있다. 정병욱³⁾은 <낙성비룡>의 창작시기와 작가의식을

- 1) <낙성비룡>은 2권2책의 한글필사본으로 총 4종의 이본이 전하고 있으며 작자와 창작연대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각 이본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혀졌으며 현재까지 연구는 가장 선본(先本)으로 알려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낙선재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주 텍스트는 낙선재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비교적 후대본으로 알려진 고대본도 참고로 하려 한다. 이하 본 연구에서 출전은 낙선재본으로 하여 (<낙성비룡>쪽 권)로 나타낸다. 다만 가독성(可讀性)을 위해 낙선재본을 원본으로 하여 교주한 입치균 외, 『낙성비룡 문장풍류삼덕록 정세비록』,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를 참고하여 필자가 현대어로 고친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 2) “식이장애에 걸리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어지고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심리적 대인관계적, 사회문화적 원인 등 모든 것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생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막막함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불안감 등도 위험 요인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 가족 내 불화가 있는 경우 등 가족 내 요인도 발병의 한 요소가 된다. 또한 식이장애와 수면장애는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김울리·정옥순, 『섭식장애의 치료』, 학지사, 2013, pp.16-21, pp.37-38.
- 3) 정병욱, 「낙선재문고 목록 및 해제(樂善齋文庫 目錄 解題)를 내면서」, 『국어국문학』

거론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낙성비룡>을 학계에 소개하면서 봉건사회의 기준질서에 대한 반발을 제기한 작품으로 보았다. 이어 이상택⁴⁾은 <낙성비룡>이 신성소설에서 세속소설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 예로 파악하였다.

둘째, <낙성비룡>의 이본과 원본 그리고 연작관계 등 그 연원을 밝힌 연구가 있다. 일찍이 <낙성비룡>은 <소대성전>과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받았다. 조희웅⁵⁾은 <낙성비룡>의 4종 이본의 실체를 검토하고 <이문성취록> 15권으로 이어지는 연작소설임을 밝혔다. 그리고 <낙성비룡>과 <소대성전>의 서사단락과 인물형상을 비교하여 이들을 이본관계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김일렬⁶⁾ 또한 <낙성비룡>의 제재와 서사적 특징에 주목하여 원본을 밝히려 시도하였고 ‘잠만 자다가 대성(大成)한다’는 모티브에 주목하여 민담적 요소가 강한 소설로 보았다. 이어 <낙성비룡>은 <소대성전>의 이본이 아니라 개작본(改作本)이라고 주장했다. 정제호⁷⁾는 주로 신화에서 나타나는 거인의 이야기에 다식(多食)과 장면(長眠)이 드러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낙성비룡>이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낙성비룡>의 주인공에 주목하여 그 인물 됴됨이를 문제 삼아 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본 연구가 있다. 김홍균⁸⁾은 <낙성비룡>에서 처가에

44·45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9, p.7.

4) 이상택, 「고전소설의 사회와 인간」, 『한국고전소설』, 계명대출판부, 1973, p.306.

5) 조희웅, 「<낙성비룡>과 <소대성전>의 비교 고찰」, 『관악어문연구』 3집 1호, 서울대 국문과, 1978, pp.463-471.

6) 김일렬, 「<낙성비룡> 연구」, 『동양문화연구』 3,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76, pp.71-89.

———, 「영웅소설의 근대적 변모에 관한 일고찰 -<소대성전>에서 <낙성비룡>으로 이행을 중심으로」, 『어문논총』13, 경북대 국문과, 1980, pp.53-71.

7) 정제호, 「<낙성비룡>의 변별적 성격과 그 연원」, 『고소설 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pp.205-231.

서 사위인 경작의 용모, 재산, 신분 등의 모자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일어나는 갈등을 살폈다. 그 결과 <낙성비룡>은 갈등의 치열성이 장난의 여유로움으로 굴절되며 조화로운 세계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혜경⁹⁾은 작품의 서사에서 빠질 수 없는 지인지감, 못마땅한 사위 등의 화소에 주목하여 <낙성비룡>이 지인지감이 드러난 여타의 소설에 비해 진지함이 없고 가볍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인공의 심리상태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모습에 중심을 두어 바라보면 또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일렬¹⁰⁾은 주인공이 게으름만 피우고 글을 하지 않아서 갖은 조롱과 학대를 받다가 결국 20대에 이르러 자발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대성한 것에 주목하여 무리한 조기교육을 비판한 작품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낙성비룡>이 가지는 여유로운 분위기에 초점을 둔 김도환¹¹⁾의 연구에 이어졌다. 이 연구는 <낙성비룡>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주인공이 추구하는 조화와 여유라는 소설적 어감을 잘 밝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낙성비룡>의 선행연구는 작품의 연구 토대를 마련하였고, 작품의 등장인물, 서사구조, 이본과 원본, 그리고 작가의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주인공 경작의 커다란 특징인 수면장애와 식이장애, 학습장애를 아우르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

-
- 8) 김홍균, 「‘못마땅한 사위형’ 소설의 형성과 변모양상」, 『정신문화연구』 85,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pp.145-165.
 9) 현혜경,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지감화소의 성격과 의미 : <소대성전> <낙성비룡> <신유복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1989, pp.175-200.
 10) 김일렬, 「고전소설에 나타난 교육비판의식」, 『어문논총』 27, 경북어문학회, 1993, pp.97-108.
 11) 김도환, 「<낙성비룡>의 구성적 특징과 소설사적 위상 : <소대성전>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Journal of Korean Culture』 18,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1, pp.125-155.

에서 민담적 인물 혹은 신화적 인물, 영웅소설인물로 보면서 그의 잠을 많이 자거나 많이 먹는 특징을 살펴본 바 있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경작에게는 이 세 장애가 고루 나타나며 이것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하다.

특히 경작의 일생에서 식이와 수면의 문제는 서사 내에서 때로는 장애로 때로는 화합의 장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인식하게 된 원인과 사회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의 위치와 주변인들과의 관계, 즉 사회적 인정과 거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꼭 필요한 것이다. <낙성비룡>에 나타난 주인공의 우울증은 주인공의 자의식, 주변인들과 경작의 친밀성, 경작의 소속감, 그리고 자아실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인공 경작은 항상 많이 먹고 많이 자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며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점에 주목하여 주인공 경작이 보이는 특정시기마다 강하게 나타나는 장애를 통해 그의 심리적 기저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중간에서 나타나는 두 번의 여행이 가지는 의미도 알아보려한다. 이 여행으로 경작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는 여타의 소설과 민담, 신화에 나타나는 게으르지만 결국에는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물을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은 그동안 정신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대적 질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고전 소설인 <낙성비룡>에서 주인공 우울증의 맥락과 자아완성의 관계를 밀도 있게 재현하고 있었는데 이를 주목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성비룡>에 나타난 식이장애와 자아완성의 관계를 살피는 본 연구는 주인공의 현재성뿐만 아니라 작품의 현재

성도 보여주는 진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 인생의 전환점과 우울증의 맥락

경작에게서 우울증의 증상은 식이장애와 수면장애 그리고 학습장애로 나타난다. 이들 장애는 사람이 불안하고 외로울 때 삶에서 도피하는 수단 이 된다. 식이장애는 많이 먹는 다식증 외에도 음식섭취를 거부하는 거식 증이나 많이 먹고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폭식증을 일컫는다. 수면장애는 잠 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나 지나치게 많이 잠을 자는 과다수면으로 나타 날 수 있다. 학습장애는 말 그대로 자신에게 기대되거나 부과된 일에 집중 할 수 없고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¹²⁾ 이러한 증상에 따라 경작의 일생은 모두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외재적 요인인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시기이다. 부모가 살아있 어 사랑을 받을 때는 대인(大人)의 기상을 보이다가 부모와 유모가 죽고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때이다. 이 시기 그는 다식증과 수면과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 며 스스로 학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자기부정의 상태가 된다.

그는 1단계와 2단계 사이 ‘첫 번째 여행’을 가게 된다. 이 여행은 너무나 먹고 자기만 하고 공부는 안하고 씻지도 않다가 결국 쫓겨나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예기치 못한 일이다. 여정의 처음에서부터 혼자서 외롭게 떠난 여

12) DSM-IV 우울증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 움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감소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거의 매일의 피로나 활력상실, 거의 매일 나타나는 집중 력의 감소 등이다. 이에 따르면 경작은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 우중하,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 『교육 연구』 19, 공주대 교육연구소, 2005, p.24.

행이지만 결국 그는 이 여행에서 선행을 행하여 청운사로 가는 계기를 만
들게 된다.

2단계는 청운사에서 지내는 때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작을 인정
하고 그 속에서 경작은 내재적인 힘을 얻어 공부에 힘쓰는 단계이다. 청운
사의 모든 스님과 벗들, 그리고 자연물에 이르기까지 경작을 존중하고 믿
어준다. 그러자 경작은 내재적 동기가 생기고 면학에 힘쓰게 된다. 이 때
경작은 자기를 긍정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와 유능함을 알게 된다. 그는 7
년 동안 만 권의 책을 읽어 과거에 급제하는 실력을 키우게 된다.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그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된다. 첫 번째 여행
이 타의에 의한 것이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에 차서 혼자 떠나
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여행은 경작 스스로가 제안한 여행이며 언제나 경
작의 편이 되어주는 청운사 장로와 함께 한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하여 4년
간 자연에서 치유받으며 세상으로 나가는 마음의 힘을 키우게 된다.

3단계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자아를 완성하는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세상은 2단계에서처럼 자신을 좋아하고 인정
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1단계처럼 자신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진짜 세상이다. 이곳에서 살아가고 나아가 자아
완성까지 이룬다는 것은 힘들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자신
을 사랑하는 사람만 모인 청운사에서 생활하여 내재적 동기가 생겼으며
또한 자연에서 노닐며 정신적 힘을 받은 그는 이 모든 것을 해낸다.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출장입상하면서 사회적 환경이라
는 외재적인 동기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내재적 동기와 외
재적 동기가 통합되어 자아완성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의 부정적
모습이었던 식이장애와 수면장애까지도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의 일부임을
인식시키고 인정하게 만드는 때이기도 하다.

1. 외재적 동기와 자아부정

경작의 일생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단계는 경작의 초년기에 해당한다. 유년기에 부모와 유모가 죽고 결혼 후 처가식구들에게 핍박받는 등의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낙성비룡>은 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별이 떨어진 곳에서 날아가는 용을 본 태몽으로 하여 얻은 아들인 이경작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명나라 정통연간에 북경에 사는 현사(賢士) 이주현과 그의 처 오씨는 오십에 이르도록 아이를 얻지 못한다. 첩이라도 들여 후사를 이을까 하고 오씨가 권해 보지만 이주현은 너무 가난한 선비이기에 첩을 들일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첩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부부는 어느 날 하늘의 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말이 하늘로 올라가는 태몽을 얻고 아들을 낳는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가사는 여전히 구차하지만 부부는 마음을 즐겁게 먹는다. 경작이 3세 되자 “기상이 대인 같으며 유아의 태가 없고 비범한 골격과 백옥 같은 풍도가 기이치 아닌 것이 없으니 보는 이가 모두 칭찬한다.”¹³⁾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구몰(俱沒)하게 된다. 남겨진 유모(乳母)는 경작부모의 묘하(墓下)에 옛집을 수리하여 천애고아가 된 경작을 돌보며 살게 된다. 유모가 경작을 보호하여 5세 되니 “영기 과인하고 기골이 웅장하여 능히 글자를 알게 되고 이웃의 책을 빌려 가르치자 통달하기가 물 같아서 하나로 인해 백(百)을 통하게 되었다”¹⁴⁾고 한다.

이처럼 작품의 초반부에서 경작은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이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곧 부모가 일시에 죽고 몇 년 후에는

13) (<낙성비룡>3b-1)

14) (<낙성비룡>5a-1)

키워준 유모까지도 잃는 등 고난을 겪는다. 하지만 날아가는 말처럼 기회를 얻는다. 이웃집 장우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중 양 승상의 눈에 들면서 그의 사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한없이 추락하지만 곧 다시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처럼 주인공 경작은 위치의 커다란 부침(浮沈)을 경험하면서 신체적인 이상증상을 보인다.

바로 이 단계에서 경작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것이다. 경작의 우울증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바로 부모를 잃은 데서 기인한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무기력을 체험하고 성장한 후에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부모의 사망이 어린이로 하여금 우울증에 걸릴 기본적인 성향을 심어 준다는 사실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¹⁵⁾고 한다. 이에 따르면 1차적으로 부모의 사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작은 부모나 유모 등 돌봐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기상이 대인(大人) 같고 영특하며 글 익히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가 부모구물한 후 7세에 유모까지도 세상을 떠나서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자 책과 담을 쌓고 많이 먹고 자는 특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잘 씻지도 않아서 꼬질꼬질하고 스스로의 용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경작이 심히 게을러 밥을 많이 먹으니 장우의 처는 매양 꾸짖어 쓸 데 없는 것이라 하고 옷도 아니하여 입히고 머리도 빗기지 아니하니 남루한 거동이 걸인을 이루었”¹⁶⁾다고 한다. 이렇게 경작은 유년기에는 하나를 배우면 백을 통할 정도로 총명했으나 부모와 유모가 죽은 이후 많이 먹고 많이 자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어느 날 양 승상의 눈에 띄어 사위로 들어오고서도 그의 특징은 계속된다. 왜 글 읽기를 하지 않는냐는 승상의 질문에 20살이 넘으면 시작

15) 세리만, 마틴 E., 윤진·조궁호 번역, 『무기력의 심리』, 탐구당, 1996, pp.156-157.

16) (<낙성비룡>7a-1)

하겠다고 한다. 장인인 양 승상과 부인인 경주는 그를 이해하지만 그 외 처가식구들은 경작을 우습게 본다. 경작은 사실 이때도 가족으로서의 소속감 없이 눈칫밥을 먹게 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우울증적인 증세는 더욱 심해진다. “여러 되 밥을 하되 순순 남김이 없고 잠자기는 너무 늦도록 하고 글읽기는 아니하”¹⁷⁾는 모습에서 밥 여러 되를 먹고 잠만 자며 공부를 할 수 없는 그의 무기력을 짐작할 만하다. 이렇게 “무기력은 반응을 주도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학습능력을 저해한다.”¹⁸⁾

경작의 일상은 “능히 벗할 이 없으니 매양 잠자기를 일삼게 되고”¹⁹⁾ 그의 모습은 “빗질과 세수도 아니하여 텅수룩한 거동이 정(整)치 아니하”²⁰⁾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사에서 뚜렷이 나타나듯이 그는 친한 이가 없어서 고립되고 혼자 지내게 되니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장모, 처남, 종들까지도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이때 그의 장애는 주변인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므로 그를 더욱 고립되게 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공부는커녕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세수나 머리 빗는 것조차 하기 힘들어지는 자기부정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인간교류에서 기본적인 청결조차도 유지하기 힘들어지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자존감이 상하기도 한다.²¹⁾

장인인 양 승상이 세상을 뜨자 처가의 구박은 더욱 자심해진다. 사위가

17) <낙성비룡>28a-1)

18) 세리만, 마틴 E., 윤진·조궁호 번역, 위의 책, p.45, p.67.

19) <낙성비룡>35a-1)

20) <낙성비룡>39b-1)

21)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울증 증세와 함께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나타낸다. 이명진,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 연구』 51, 한국교육학회, 2013, p.7.

아리따운 막내딸의 미래를 망친다고 생각하여 장모가 앓아 눕고 이로 인해 경작은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처가에서 쫓겨나게 된다.

2. 내재적 동기와 자아긍정

자아부정의 상태에서 자아긍정의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경작의 경우는 그것이 여행을 떠나면서 가능해졌다.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잡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정신적으로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가 어떻게 활력을 찾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경작은 쫓겨나면서 첫 번째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자기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인이나 환경에 의해 가려져 있던 자신의 실체가 길에서 만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여행에서는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 청운사에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이 첫 번째 여행은 사실 경작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장인이 죽은 후 처가에서 쫓겨나면서 시작된다.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무작정 떠나는 것이다. 그는 “복(僕)의 너른 배를 능히 얻어먹고 가지 못하리니 일로써 난처하여라”²²⁾고 하며 쫓겨나면서도 집에서 나가면 자기 먹는 양을 채울 수 없게 될 것을 걱정한다. 여기서 보면 그는 존재론적 고민이나 철학적 사색은 없고 다만 1차적 욕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그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여행에서 노인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 경작은 여행하면서 불쌍한 노인을 만나 선행을 행하고 이 대가로 청운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작은 처음 만난 노인이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빚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털어준다. 이 돈은 처가

22) (<낙성비룡>47b-1)

에서 쫓겨나는 그를 불쌍히 여긴 그의 아내가 결혼할 때 한 패물을 팔아 마련해 준 것이다. 아버지를 잃은 자신의 모습을 노인에게서 발견한 그는, 후일 갚겠다는 노인의 말을 들은 채 앓고 길을 떠난다. 이 여행은 경작이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 잘 드러내주며 이러한 그의 인간됨으로 인해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 여행에서 그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선한 인물로 묘사되며 특히 상대가 노인이며 부모의 장례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살아온 그의 트라우마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는 노인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를 얻게 된다. 이 여행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게으르게 밤만 축내는 모습에 가려진 그의 인물됨이 드러나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그는 현실을 바꾸는 기회를 얻어 선행에 보상을 받는다.

2단계는 청운사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때이다. 경작은 환상 속에 나타난 죽은 장인의 계시대로 청운사로 가게 된다. 청운사에 도착하자마자 경작은 공부에 온 힘을 다 바친다. 공부하는 5년 동안 “주야일시(晝夜一時)를 쉬지 않아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고 저녁으로부터 낮에 이룸이 그침이 없으니 성음이 부절여루(不絕如縷)”²³⁾한다. 그는 마치 밥먹기와 잠자기를 잊은 듯 열심히 글공부하여 훗날 장원급제하는 실력을 쌓는다. 그의 공부에는 청운사라는 공간적 배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청운사에 도착하자 따뜻하게 맞이해준 모든 승려가 있었다. 주지스님인 청운사 장로(長老)는 물론 청운사의 모든 승려가 경작이 오기 전부터 나와서 맞이하고 모두 믿어주고 격려한다. 경작은 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23) (<낙성비룡>62b-1)

입할 수 있었다. 즉 “정신적 욕구란 곧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해 줄 생동감과 방향감, 소속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²⁴⁾ 이 욕구가 충족될 때 더 이상 지나치게 먹고 자는 1차적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자기실현 욕구인 공부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청운사에서 공부하며 만난 경작의 친구 임강수와 유백문은 모두 조실부모하고 처가에 의탁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처음 만나면서부터 나중에 출장입상한 후까지도 같이 가는 평생의 지기(知己)인데 조실부모한 처지가 같은 친구이기에 더욱 마음이 통했을 것이다. 친구 두 명은 모두 처가에 의탁해 있으나 처가에서 인정받고 처가식구들과 사이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경작에게 긍정적 동일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다.

한편 어릴 때 부모가 죽은 후 부모묘하에서 살았고 성장한 후에는 부모묘에서 혼례를 치르며 처가를 떠나면서 부인에게 특별히 부모 묘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등 경작은 부모 특히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아버지에 대한 결핍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가진 경작에게 도움을 주는 이는 장인이다. 경작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상실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한다. 그러다가 그는 제 2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장인과 관계를 맺고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 여기서 우울증의 역설적인 면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 “우울증(무기력)을 일으킨 바로 그 조건들이 거꾸로 우울증에서 환자를 회복시키는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수가 있다. 여러 가지 회복기제의 도움을 받아 자존심을 회복함으로써 자애적인 충격에서 자아를 회복시킬 수 있을 때에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²⁵⁾는 것이다.

이러한 우울증 진단을 적용하자면 경작은 자신에게 무조건적 신뢰를 주고 소속감을 주는 제2의 부모가 있으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24) 라모스, 키머러, 홍선영 옮김, 『몸, 욕망을 말하다』, 생각의 날개, 2009, p.206.

25) 세리만, 마틴 E., 윤진·조궁호 번역, 위의 책, p.156-157.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경작에게 제2의 부모는 1차적으로는 살아생전 경작을 인정하고 사위로 받아들인 장인이며 2차적으로는 장인의 계사로 만나게 된 청운사 장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인은 환상 속에서 경작을 보자, “밥을 한 말만큼 짓고 찬통을 갖추어”²⁶⁾ 대접한다. 한 끼에 밥을 한 말이나 먹는 있는 그대로의 경작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청운사 장로도 “일정 식량(食量)이 광대(廣大)”²⁷⁾하다고 하며 “음식 큰 그릇에 장(長)하고 산채(山菜) 정갈하게 대접한다.”²⁸⁾ 그때부터 경작은 먹는 것에 향하는 관심이 공부로 향한다. 장로뿐만 아니라 청운사의 모든 승려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자 그는 주야장천(晝夜長川) 공부에 매달린다. 먹을 것이 늘 부족하고 그의 다식이 주변의 질타의 대상이 될 때 먹는 것에 집착했고, 잠을 많이 잔다고 구박받고 그로 인해 주변인들의 구박을 받을 때도 잠을 줄이지 못했던 그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청운사에 오자 먹고 자는 것이 아닌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다. 이때는 평생 가는 두 명의 지기(知己)와 마음을 나눌 뿐 아니라 심지어 그의 글 읽는 소리에 맞추어 “뒷산의 잔나비가 뛰 놀고 앞산의 금수(禽獸)가 날아와 춤추는”²⁹⁾ 등 주변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모든 중이 어린 듯이 (경작의 책 읽는 소리를) 듣는다.”³⁰⁾ 주변인의 인정과 환대,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지기와의 사귀 등을 통해 내재적인 동기로 자신감을 얻고 공부에도 뜻을 두는 시기로 자아를 긍정하고 확립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경작은 이때 자기를 부정하고 우울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를 긍정하고 공부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6) (<낙성비룡>56b-1)

27) (<낙성비룡>61a-1)

28) (<낙성비룡>61a-1)

29) (<낙성비룡>63a-1)

30) (<낙성비룡>63a-1)

3. 통합적 동기와 자아완성

자아긍정의 상태에서 그는 주변인의 긍정적 지지를 받고 학습적으로 몰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경작은 모두에게 인정받고 내면적으로도 충만한 자아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려 한다. 그 이유는 청운사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청운사의 스님과 주변 동물들에게 받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는 이 세상에 나와서도 세상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성공하는 자아완성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숨을 고르는 과정 즉 여행이 필요하다.

경작의 두 번째 여행을 떠난다. 그는 높은 학문적 성취로 인해 과거시험을 권유받지만 그는 홀연히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내 여기서 독서하기를 7년을 하여 만권서(萬卷書) 이미 복중(腹中)에 장(藏)하였으니 한번 유산(遊山)하여 천하명승지를 거두미 엇지 쾌치 아니하리오. 사년을 기약하여 만물지기를 살피고저 하나니 장로는 나를 위하여 한가지로 감이 어떠하뇨?”³¹⁾라는 경작의 제안에 장로도 “4년을 기약하여 2년은 명산(名山)을 유람하고 2년은 대해(大海)를 중류(中流)하여 마음이 흰출하리라.”³²⁾고 대답한다.

첫 번째 여행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혼자만의 여행이었다면 두 번째 여행에서는 경작을 잘 아는 장로가 같이 동행한다. 또한 먼저의 여행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타의에 의한 것이었고 혼자만의 외로운 여행이었으며 떠나기 전 걱정이 많았던 반면, 이번 두 번째 여행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자신을 잘 알고 아끼는 장로와 함께 하

31) (<낙성비룡>14b-2)

32) (<낙성비룡>15a-2)

며 세상으로 나가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여행은 휴식의 차원에서는 1 단계에서는 고생하고 뒤이어 2단계에서는 열심히 공부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여행으로 과거 1단계에서 사람들에게 다친 마음을 이제는 자연에서 치유하게 된다.

“우울증은 ‘속도를 늦추라’고 말한다. 당신에게 지금은 원래 있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우울증은 우리의 삶에 내재된 피할 수 없는 상실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³³⁾ 이에 따르면 경작은 서둘러 현실 속으로 뛰어들기 보다는 현실을 벗어나서 자연을 여행함으로써 삶의 속도를 늦추고 휴식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자신을 가장 인정해주는 인물인 장로와 같이 온전히 시간을 나누었기에 이 경험은 그에게 자아완성으로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 여행 간에도 많이 먹거나 많이 자는 모습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4년간 목적 없이 자연 속에서 치유하면서 그는 현실에 뛰어들 용기를 얻게 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 경작은 2단계에서 같고 닭은 노력으로 인해 자아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는 현실로 돌아와 과거시험을 본다. 7년간 만권의 책을 보고, 친구들의 급제소식을 들으면서도 막상 과거 보기를 망설이던 그는 두 번째 여행에서 자연 속에서 휴식하면서 자신감을 얻고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동안 이론 실력으로 과거를 봄에 단번에 장원급제한다. 처가에 온 그를 보고 처남이나 장모는 알아보지 못한다. 처남들은 “그대 어찌 하여 몸이 이에 이르렀는가”³⁴⁾하며 놀라워하고 장모는 “옛일을 생각하고 지감(知鑑)이 없는 줄을 길이 참괴하고 낮가죽이 두꺼움을 이기지 못하여

33) 호노스 웹, 라라, 신민섭·김성준 옮김, 『우울증이 주는 선물』, 2008, p.141.

34) (<낙성비룡>44b-2)

하노니 바라건대 현서(賢婿)는 옛 허물을 용서하라,” 하며 용서를 빈다. 이 말에 경작은 몸을 숙여 공경하여 대답이 화평하며 조금도 옛일을 기념(記念)치 아니한다. 이렇게 경작은 게으른 사위로 자심한 구박을 받았으나 처가에서 용서를 구하자 망설임 없이 용서하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인다.

전쟁에 나가서도 적이 보낸 자객에게 무술이 아닌 인격으로 감화시킨다. 그의 전쟁에서 공은 사실 소략하게 언급된다. 모든 전쟁은 간단히 이기고 자신을 죽이려고 온 자객을 인격으로 감화시키며 항복하는 번왕을 용서하여 받아준다. 여기에서 보듯이 경작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전쟁에서의 적이라 하더라도 무력으로 죽이거나 해치기보다는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에 감동받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 시기에도 그는 여전히 많이 먹고 나서 잠을 많이 자다가 조화에 늦기도 하고 약간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서 처가에서 떨시받고 쫓겨날 정도로 흠이었던 식이장애와 수면장애는 여기서는 그의 특징으로 오히려 왕까지 인정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특히 다식(多食)은 사실 화락(和樂)의 기본이기도 하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어울려 먹고 마시다 보면 많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후반부에서 다식은 사람들과 화합하는 모습의 일환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친구들과 화합하며 임금에게 인정받고 끝없는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다소 길게 묘사된다.

장원급제와 전쟁의 승리로 출장입상이라는 자아완성으로 이루어진 경작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그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구해온 귀한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는 등 즐기며 행복하게 세월을 보낸다. 어찌 보면 그는 너무나 아무 걱정 없이 사람들과 화락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낙성비룡> 서사에서 마지막 부분이 주인공의 존재론적 탐색이나 고민없이 마냥 먹고 노는 장면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동안 연구자들이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³⁵⁾

하지만 경작의 일생에서 단계별로 이루어간 것에 대해 살펴보면 그
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즐기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1단계에서 부정적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는 남들과
같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대다수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스스로를 부
정하며 살았고 2단계에서 그는 부정적 환경에서 벗어나면서 주변인들에게
전적으로 인정받을 때 자아를 긍정하는 힘이 생기면서 목표가 생기고 성실
하게 살 수 있었다.

3단계에서의 주변 환경은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
누구나 경작을 보기도 전부터 환영하는 사회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3단
계의 환경은 1단계에서처럼 누구나 자신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보
여줌으로써 능력을 인정받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남들과 다스
다른 특징인 식이습관까지도 인정받게 된다. 환경이라는 외재적 요소를 자
기편으로 만들고 자신감이라는 내재적 동기까지 가진 그는 환경과 자아가
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자아완성을 이루게 된 것이다. 작품의 초반부
에서 자기편이 별로 없이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먹는 것과 자는 것에 탐닉
하나 그 먹을 것조차도 넉넉하지 않아 항상 굶주려야 했고 잠자면서도 항
상 주변인들에게 멸시받던 그가, 후반부에서는 자기편으로 둘러싸여서 교

35) 이와 같은 논의의 공통점은 <낙성비룡>이 현실적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현해경은 영웅의 일생구조와 지감화소가 결합한 작품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이 중 <낙성비룡>에서는 주인공 경작을 통해 성인적인 면모와 문무를 겸비하고 복록
까지도 두루 갖춘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작품 후반부
에서 현실에 존재하기 힘든 이상적인 복록과 안일한 호사에 서사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아 진지한 작가의식이 없다고 비판하였다.(현해경, 위의 논문, p.199.) 또한
김홍균은 갈등의 치열성이 장난의 여유로움으로 굴절되며 조화로운 세계상을 지향한
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은 영달한 후에 누리는 여유있는 모습이 크게 확대되는 점과도
상통한다는 것이다. (김홍균, 위의 논문, p163.)

유하고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며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에게 있어 즐겁게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가치를 지니는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Ⅲ. 우울증의 해소와 여행의 의미

<낙성비룡>에서 우울증의 해소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두 번의 ‘여행’과 이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휴식하고 치유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생활에 치여 잘 드러나지 않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또한 “여행은 자기 안의 무의식과 불안과 결핍을 극복하려는 현대인의 탈출구이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등의 표출이기도 하다.³⁶⁾ 경작 역시 여행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현실의 탈출구로써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을 만든다.

한편 경작의 여행은 특이한 점이 있다. 보통의 여행이 떠나서 여행한 후 다시 처음에 떠난 자리로 되돌아오는 법이지만, 경작의 여행 각각은 떠난 후에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첫 번째 여행은 처가에서 출발하여 청운사에 도착하면서 끝났으며, 두 번째 여행은 청운사에서 시작하여 다시 과거장 근처의 세상에서 끝맺는다. 말하자면 여기서 여행은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아를 부정하게 되는 곳에서 자아를 긍정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자아를 완성하는 곳으로 이르는 것이 여행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36) 이영관 박인정, 『여행의 치유적 가치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접근: 신경숙, 윤대녕, 전경린의 여행소설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집 6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15, p.6.

하지만 크게 보면 겉으로 분리된 듯한 두 여행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와 3단계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사는 현실적 공간이다. 2단계인 청운사는 경작을 위한 단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다소 비현실적이며 환상적 공간이다. 첫 번째 여행에서 현실적 공간에서 비현실적 공간으로 이동했다면 두 번째 여행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현실적 공간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두 여행을 거쳐서 결국 경작은 원래 살던 공간으로 돌아오게 되며 현실에서 뿌리내리게 된다. 또 두 여행 모두 치유과정을 거쳐 자아를 찾고 자신 안에 있는 결핍과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 여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작의 첫 번째 여행은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 여행에서 자신의 인간됨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이것은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 청운사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을 소외시키는 집단에서 나와서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집단으로 들어가는 이행단계이기도 하다. 경작을 소외시키고 경작을 놀림감으로 생각하는 처가 가족과 한시적으로나마 분리되어 지낸다는 것은 자아완성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경작은 많이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먹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식이장애와 수면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학습적 능력을 믿어주는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서 그는 자아를 긍정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은 첫 번째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여행에서 만난 노인인 결국 자기 손으로 부모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과거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다. “여행은 이동을 전제로 하며 소설에서는 떠남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융의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여행주체가 무의식과 만나는 단계이며 타자를 통해 자아를 대면하게 되는 과정이다.”³⁷⁾ 여행에서 만난 노인은 경작의 무의식으로 볼 수 있으며, 노인을 도와준 경작은 사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치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작이 황폐한 유년기를 보내고 처가에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부모의 부재라는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없었던 자신을 더 안아줌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계기로 지상낙원과 같은 청운사로 들어가게 된다.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경작은 두 번째 여행을 한다. 비자발적이었던 첫 번째 여행과는 달리 두 번째 여행은 자신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며 여행의 기간이나 목적, 동행자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4년간 자연에서 장로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여행에서는 가장 자신을 믿어준 장로와 함께하며, 자연 속에서 우연히 친구인 임강수를 만나게 되고 친구에게 흔들림 없는 지지를 얻게 되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사실 여행 중 만나는 친구는 ‘경작의 미래 모습’이기도 하다. 임강수와 경작 모두 부모가 일찍 구물하여 처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경작과는 다르게 친구는 처가식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인정받고 있었고 벼슬이 높아서 경주 총마어사(驄馬御史)에 이른다. 경작에게는 임강수의 행보가 자신이 앞으로 3단계의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나 처가식구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암시하여 이끌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1단계에서 식구로서 구박받고, 첫사위와 심하게 차별받으며, 두 처남의 놀림감이 된 그는 걸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많을 것이다. 2단계인 청운사에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하더라도 바로 3단계로 들어가기에는 망설여지는 점이 있다. 3단계에서 이번

37) 이영관·박인정, 위의 논문, p.13.

에는 자신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어준 입장에서, 처가와와의 관계가 좋고 벼슬도 높으며 임금에게 인정받는 친구를 실제로 보고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여행으로 그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사실 이 세상은 청운사에서처럼 경작을 위주로 흘러가지 않는다. 청운사에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그를 보기도 전부터 그가 오기를 준비하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곳도 아니다. 경작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은 결국 현실 세상 속에서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다. 여기서 두 번째 여행의 의미가 있다. 이 여행에서 자신감을 가진 경작은 세상에 나갈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낙성비룡>에서 두 번의 여행은 각각 과거와 미래의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더불어 현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우울의 문제를 다루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1단계에서 식이장애, 수면장애, 학습장애를 드러내던 경작은 2단계에서는 이들 장애를 드러내지 않다가 3단계에서는 다시 식이장애와 수면장애, 특히 식이장애를 드러낸다. 우울증이 다 나왔다고 할 수 있는 3단계에서 경작은 또다시 많이 먹고 자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과거장에서부터 그는 많이 자는 바람에 자신이 장원이라는 것을 듣지 못하기도 하고 벼슬에 나아가서는 그 전날 많이 먹고 마신 덕분에 조회에 늦기도 한다. 그런데 이 때 많이 먹는 모습은 주변인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는 것으로, 결속의 한 단면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기서 먹는 행위는 먹는 사람에게 안정감이나 즐거움을 주며 함께하기 위해 걱정 없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1단계에서 사람들에게 느꼈던 불신이나 두려움, 혹은 가난이나 이로 인한 끝없는 배고픔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 때도 여전히 음식은 경작의 삶의 중요

한 부분이지만, 힘든 감정을 잊기 위한 대체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다식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다식을 그 자체로 인정받으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라에서나 가정에서 중요한물로 살게 되고 자신의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현대의 식이장애 치료방법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우리들이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남들과 단일한 칼로리를 섭취하기를 강요하고 다식하는 식습관을 고치려 노력한다. 반면 <낙성비룡>에서는 그의 식량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즉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점을 이상하게 보고 획일화된 치료법을 제시하는³⁸⁾ 반면 우리의 고전에서는 개인의 특이점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특이 상황을 승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1차적으로 생리학적 욕구를 지니며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다”³⁹⁾고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각각의 단계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 식욕과 같은 생리학적 욕구가 다 충족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단계를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인정받겠다고 해서 과한 식욕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한번 커진 위장이 다시 작아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기⁴⁰⁾ 때문이다. 물론 생활이

38) 지금 우리가 흔히 기준을 삼는 의학적인 이상적 식습관을 모두에게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 “서구의 기준에 따르면 라다크의 전형적인 식사는 전혀 균형잡힌 것이 아니다. 푸른 채소와 과일은 아주 조금밖에 없고, 버터와 소금의 소비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위험할 만큼 높다. 그러나 그런 불균형의 결과로 서구에서 흔히 보는 건강문제들은 거의 없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녹색평론사, 2001, p.61.

39) 매슬로우, 에이브리햄 H, 조대봉 역, 『인간의 동기와 성격』, 교육과학사, 1992, pp.47-62.

힘들 정도로 식탐에 집착하지는 않고 먹을 것에 다소 초연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소식하는 삶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없애지지 않는 이 많이 먹는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낙성비룡>에서는 경작을 통하여 그의 다식을 억지로 없애려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는 계기로 됨을 말하고 있다.

“먹을 때 우리의 자아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로 빠져 들어갈 때의 자아와 같으며 생동감이나 방향감, 소속감 등을 갈구하는 자아와도 같다”⁴¹⁾고 한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경작은 몸에서 필요한 영양 공급 뿐 아니라 지지와 거부, 인정과 배타 사이에서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갈망하고 있으며 자아 완성의 확신에 대한 욕구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낙성비룡>은 식이장애를 비롯한 우울증이 현대에 갑자기 나타난 병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 속에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식이장애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며 <낙성비룡>에서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낙성비룡>은 개인이 자연과의 조화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고전 강독이 현대의 당면과제를 재조명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국 관계성을 존재의 본질로 인정⁴²⁾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삶에 대한 지침을 고전에서 찾는다는 것으로도 관심을 갖게 한다. 결국 개개인이 최대한 주변인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40) 폭식증을 앓은 후 완전히 회복한 이의 수기에 “한번 늘어난 위장은 다시 줄어들기 힘들며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기도 힘들다”는 내용이 있다. 윤주희, 『다녀왔습니다』, 북하우스, 2007, p.347.

41) 라모스, 키머러, 홍선영 옮김, 위의 책, 2009, pp.93-94.

42)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망으로서 존재하며 존재의 본질은 관계성이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와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상통한다. 신영복, 『강의』, 돌베개, 2010, p.24.

행복해지며, 한편으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⁴³⁾

IV. 맺음말

본 연구는 삶의 부침에 따라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주인공 경작의 상황에 주목하여 이를 우울증과 자아실현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주인공의 이중적 생활태도는 일종의 우울증적 증세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주인공의 자아 긍정과 부정의 모습과 겹치는 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인공이 목적의식 없이 살아갈 때 그는 먹고 자는 것에 집착하고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반면 주인공이 청운사에 들어가 승려들에게 환영 받고 인정받을 때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보이며, 침식을 잊은 듯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인공의 식이와 수면 학습장에는 일종의 우울증적 증세로, 그것은 심리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면 주인공이 장원급제하는데 그 후부터 주인공의 먹고 자는 문제는 남들과 다르게 어울리기 힘든 배타적인 모습이 아니며 주

43) 한편 낙성비룡이 유통된 18,9세기는 가문이 해체되고 과거제도가 사라진 때이기도 하다. 이 때 다른 낙성재본 소설은 가문의 회복이나 번성에 중심을 두고 과거제를 통한 인정과 끝없는 영달을 보여주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낙성비룡>의 경작은 이런 시기 우울증을 앓는다. 경작의 우울증은 사실 독자의 것이기도 하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방향을 완전히 인식하기는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오는 집단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경작은 자신이 가진 과거의 틀 속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했지만 주인공이 모든 것을 가진 중에도 우울증의 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우울증의 깊이와 폭이 개인적 영달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적 산물일 수도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기약한다.

변인들에게도 경작만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친구들과 교우하면서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안정을 누리는 후반부에서 경작의 다식과 과다수면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본적 모습으로 또 임금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일화로 서술된다. 이 때 주인공이 많이 먹고 자는 습관은 식이장애가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그만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번의 여행이 큰 역할을 한다. 경작은 첫 번째 여행에서는 과거 자신의 모습인 노인을 만난다. 노인을 위로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안아줌으로써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게 된다. 두 번째 여행에서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 용기를 얻고 미래를 그리게 되며 현실세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게 된다. 이렇게 두 번의 여행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삶의 방향성을 가진다. 경작의 여행은 현실에서 환상으로, 다시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자아부정에서 자아긍정으로 나아가고 결국 자아완성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여행은 경작에게 환경의 변화를 주며 결과적으로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경작의 경우에서 보건데 식이장애나 수면장애 그리고 학습장애는 과거의 선조에서부터 현대의 우리 그리고 미래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일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애를 현대에 국한된 질병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고전소설 <낙성비룡>을 통해 인간 본연의 한 단면으로 바라보았다. 예를 들면 <낙성비룡>에서 식이장애는 단지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비롯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낙성비룡>은 우리의 고전에서 현대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선구안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와 포부가 있지만 주변에서 잘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고립되어

힘들어하던 주인공 경작이 자아부정에서 자아긍정으로 다시 자아완성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각박해진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낙성비룡>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울의 실체가 경작 개인의 환경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시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영화에 집착하는 낙선재 본 소설의 특징을 뛰어넘어 시대적 통찰까지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여타의 소설과 민담, 신화에 나타나는 게으르고 많이 먹고 자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을 이해하는 것으로 연구 방향을 확장하려 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이런 인물을 연구하는데 본 연구는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임치균·박순임·허원기·이지영 교수, 『낙성비룡 문장풍류삼덕록 정세비티록』,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정병욱, 『인봉소 낙성비룡』, 경희출판사, 1968.

『성룡전』,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

2. 논문 및 단행본

김도환, 「<낙성비룡>의 구성적 특징과 소설사적 위상 : <소대성전>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Journal of Korean Culture』 18,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1, pp.125-155.

김율리·정옥순, 『섭식장애의 치료』, 학지사, 2013, pp.16-21, pp.37-38.

김일렬, 「<낙성비룡> 연구」, 『동양문화연구』 3, 경북대 동양문학연구소, 1976, pp.71-89.

_____, 「영웅소설의 근대적 변모에 관한 일고찰 -<소대성전>에서 <낙성비룡>으로

- 이행을 중심으로, 『어문논총』13, 경북대 국문과, 1980, pp.53-71.
- _____, 고전소설에 나타난 교육비판의식, 『어문논총』 27, 경북어문학회, 1993, pp.97-108.
- 김홍균, 『못마땅한 사위형』 소설의 형성과 변모양상, 『정신문화연구』 85,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pp.145-165.
- 신성웅 외,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권 1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00, p.137.
- 신영복, 『강의』, 돌베개, 2010, p.24.
- 우종하,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 『교육 연구』 19, 공주대 교육연구소, 2005, p.24.
- 윤주희, 『다녀왔습니다』, 북하우스, 2007, p.347.
- 이명진,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 연구』 51, 한국교육학회, 2013, p.7.
- 이영관·박인정, 『여행의 치유적 가치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접근 : 신경숙, 윤대녕, 전경린의 여행소설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집 6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15, p.6, p.13.
- 정병욱, 『낙선재문고 목록 및 해제(樂善齋文庫 目錄 解題)』를 내면서, 『국어국문학』 44·45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9, p.7.
- 정제호, 『<낙성비룡>의 변별적 성격과 그 연원』, 『고소설 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pp.205-231.
- 조희웅, 『<낙성비룡>과 <소대성전>의 비교 고찰』, 『관악어문연구』 3집 1호, 서울대 국문과, 1978, pp.463-471.
- 현혜경,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지감화소의 성격과 의미 : <소대성전> <낙성비룡> <신유복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1989, pp.175-200.
- 라모스, 키머러, 홍선영 옮김, 『몸, 욕망을 말하다』, 생각의 날개, 2009, p.93, p.94, p.206.
- 매슬로우, 에이브리햄 H, 조대봉 역, 『인간의 동기와 성격』, 교육과학사, 1992, pp.47-62.
- 세리만, 마틴 E, 윤진·조국호 번역, 『무기력의 심리』, 탐구당, 1996, p.45, p.67, pp.156-157.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녹색평론사, 2001, p.61.
- 호노스 웹, 라라, 신민섭·김성준 옮김, 『우울증이 주는 선물』, 2008, p.141.

Abstract

A Study on the Unwinding of Depression and the meaning of
Travel in <Nakseongbiryong>

Lee, Hyun-ju

Kyung-zac lose parents early in life and cultivating the main character after left alone, be conspicuous and son-in-law of Yang Jung Seung, and finally Jangwon of fighting the barbarians by passing an examination after many hardships before passing the ball. Such as a main character's story to distinction. The main character in the process of the cultivation of a few times a turning point in his experience. The cultivation of life goals they lost their only indulgence, sleeping and eating too much when not recognized by the other people's shows typical of depression. Not like the same person sometimes, however, focused goal, studying so devotedly. At this time he was to show life's goals and achieve them. When recognized from others.

Such as more than self-denial and his ego and positive completion of travel between the two trips. He hug him in the past as a first trip and draw in the future looks like second trip. He is currently due to a journey of twice to get the power that can be a step in.

In addition,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distribution is <Nakseongbiryong> naksseonjaebon that is novel. Family novel <Nakseongbiryong> because cultivation is greatly affected by a loyalty to family of distinction and wages can see that in a very big on definitions. That can have the cultivation of exclusivity that these values, relationship with the most important is that people.

<Nakseongbiryong> is so uniquely modern when we deal with the issues such as depression and that to the futuristic as the oldest way of presenting a solution.

Key Word : <Nakseongbiryong>, depression, Eating disorder, Sleep disorder,
learning disability, travel, healing

이현주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90hjlee@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